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대 바실리오스 케사리아의 대주교

성탄 축일 다음 주일, 신현 축일 전 주일

성 아니시아 수녀순교자

제6조, 조과복음 9

성 요한 크리스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성탄 축일 제2응송 / 214. B 251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모두 가까이 와서' / 14. A 42
- 성탄 축일 찬양송 / 214. B 251
- 성당 찬양송
- 성탄 축일 시기송 / 214. B 253
- 사도경 : 갈라디아 1, 11-19 / 217. 봉독서 287
- 복음경 : 마태오 2, 13-23 / 209. B 246
- 성탄 축일 성모송 / 216. B 257
- 성탄 축일 영성체송 / 216. B 257
- '우리가 참빛을 보았고' 대신 '성탄 축일 찬양송' / 214. B 251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2019년 신년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이한 새해는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과 형언할 수 없는 자비에 대해 시간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고 기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 심사숙고해보는 기회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새해가 좋은 해가 될지 아니면 나쁜 해가 될지는 새해 동안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

☞ 2면으로 계속

☞ 1면에서 계속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에페소 5:15~16)

그러면 사도 바울로께서 언급하신 바, 이 시대에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엇이고, 시간은 또 어떤 의미이며, 악한 시대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각각의 사람에게 시간은 언제나 직면해서 살고 있는 삶 그 자체입니다. 악한 시대라 함은 올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혜와 덕으로 처신하고, 용기와 인내로 모든 슬픔과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모든 적들의 유혹을 견뎌나간다면, 지혜의 시간을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부당함과 불명예와 비난의 순간들조차 활용하는 사람이니, 그는 오직 영적 유익만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 때문입니다.”(신신학자 성 시메온)

사도 바울로의 말씀과 신 신학자 성 시메온의 해석은 새해에도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면, 하느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교회 신앙은 빈말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

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마태오 13:45~46)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의 장사꾼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알게 해주신 올바른 가르침(정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의 삶에서 올바르게 행동해 나간다면 새해도 하느님의 왕국을 얻는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조차도 그것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보다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께서서는 최근 한국 방문 중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대통령 임기 중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기를 기원하셨습니다.

우리도 2019년도에 대한민국이 평화를 이루고 통일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직자들과 한국의 정교회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 육적인 건강과 주님의 강복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큰 사랑과 존경을 담아

† 암브로시오스 한국의 대주교





성탄절의 의미

(정교 작가들과 교부들의 가르침에서 옮김)

“...**형**체가 없고, 부패하지 않으며, 무형인 하느님의 말씀께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이전에도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어떤 부분도 그분 없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분이야말로 언제나 성부와 함께 연합하여 거하시면서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의 수준에 맞춰 몸을 구부리시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며,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성 대 아타나시오스)

“...**오**늘 인류의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신성에 대한 신성의 화해가 이루어졌으며, 신성에 대한 인성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모든 창조 세계와 우주만물이 기뻐하면서 한껏 뛰어들어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을 향해 보내어지고, 아래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향합니다. 오늘 어둠은 죽음을 맞이하고, 인간의 생명이 생겨납니다. 오늘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이 만들어졌고, 하느님이 인간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길이 이루어졌습니다.”(성 대 마카리오스)

“...**오**늘 동정녀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을 낳으시네. 그리고 땅은 접근할 수 없는 분에게 동굴을 제공하네. 천사들은 목자들과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네. 동방 박사들은 인도하는 별을 따라 제 길을 가네. 우리를 위해 새 아기가, 태초 이전의 하느님께서 태어나시네.”(로마노스 작곡가, 성탄절 시기송)

“...**구**세주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른바 정념(情念)에 사로잡히고 유한한 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상태를 정결하게 치료하기 위해 생명을 주는 계명을 주신 목적은 처음 지은 죄로 인해 손상된 영혼을 깨끗이 치유하여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병든 몸에 약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의 명령은 인간적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다.”(성 이삭 시리아인)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신년, 신현 축일 예배 일정

- 2018년 12월 31일(월)
오후 : 축일 대만과
- 2019년 1월 1일(화)
오전 : 축일 조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바실로빠파 축성 기도식, 다과
- 2019년 1월 4일(금)
오전 : 신현 축일 대시과
- 2019년 1월 5일(토)
오전 : 신현 축일 조과
성 요한 크리스토포모스 성찬예배
오후 : 신현 축일 대만과
- 2019년 1월 6일(일)
오전 : 신현 축일 조과 및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신현 축일 대성수식
(자세한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

■신자총회 ▷ 오는 1월 13일 주일 성찬예배 후 서울, 부산, 전주, 울산, 춘천 각 지역 성당에서는 신자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2018년도 영적 사업 결산과 2019년도 영적 사업 계획을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 받은 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 ▷ 2019년도 겨울수련회가 1월 23~26일(초,중,고등부), 26~27일(신데즈모스)에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여하여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학생회는 5만 원, 신데즈모스는 2만 원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당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2019년도 신자총회 공고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운영위원회는 2019년 1월 21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한국정회 대교구의회 참석준비를 위해 인천 성 바울로 성당 2019년도 신자총회를 오는 12월 30일(주일) 성찬예배 직후에 성당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18세 이상 세례 받은 정교회 신도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신자회비를 납부한 후 결의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례와 견진을 축하합니다 ▷ 성탄절 전 주일인 12월 23일 성찬예배와 함께 집전된 세례성사에서 요한 김동욱의 둘째 아들인 김도연이 세례명 나타나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마리아 (Maria Valerievna)의 딸 Yuriko Se 가 세례명 테오도시아로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축복으로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와 가정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영성 생활로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전주 성모 안식 성당

■겨울 수련회 ▷ 성당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1. 일시 : 1월 6(일)~8(화)
2. 장소 : 무주 스키장
3. 주제 : '믿음의 삶 — 신화'
4. 참가비 : 10만 원 / 5만 원(스키 타지 않는 참가자)

자세한 안내는 성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성당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